

한국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성료보고

Page1

성료 감사인사, 김효신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2022년 7월 1일, 2일 (사)한국상사법학회는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법무부와 경북대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하계학술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시작된 지 3년째 되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개최 소식에 찾아와주신 회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금번 학술대회를 위하여 큰 뜻으로 후원해주신 기관 회원 및 한국해운협회, 아낌없는 협찬을 해주신 관계자 분들, 시작부터 끝까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상임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신현윤 명예회장님께서 ‘한국 상사법제의 나아갈 길’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학술대회 논의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션별로 이루어진 13개 발제도 다양한 분야의 연구 테마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양일간 최다 인원인 140명이 방문하셨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강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회원님도 계셨습니다. 저녁 공연에서는 뮤지컬&댄스팀의 공연과 함께 행운권 추첨도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신 회원님, 참석자들에 감사드리고, 하반기 추계학술대회와 학회 사업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Page2

**한국상사법학회 참석 후기,
최완진 前한국외대 법전원장 /
명예교수**

한국상사법학회 하계 학술대회가 대구 인터블고호텔에서 7월1일과 2일 양일간 개최되었다. 대주제는 <새 정부의 상사법 정책 아젠다>로 정해진 가운데 신현윤 명예교수(연세대)의 ‘한국상사법제의 나아갈 길’에 대한 기초 발제에 이어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둘러싼 제도 정비 방안 검토’, ‘경영권 변동시 피인수 기업 주주 보호’, ‘벤처 생태계 조성의 입법과제’, ‘자본시장법상 부적절한 정보제공 행위의 규제 필요성’, ‘온라인 플랫폼 법제의 개선 방안’, ‘회사법상 주주 제안제도의 재정비 방안’, ‘디지털화 및 공급망 불안정시대의 해상법 과제’ 등에 관한 논문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항상 우리 학회가 열리는 이즈음이면 장마철이 시작되는 시기여서 날씨 걱정이 되었으나 올해는 매우 쾌청한 날씨여서인지 참석자들의 마음도 한결 밝아 보였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개최된 첫 대면회의 인지라 많은 회원들이 오랜만에 반갑고 기쁜 얼굴로 인사를 나누기에 바빴다.

내가 한국상사법학회에 가입한 것이 1980년 3월 1일이었으니 어언 42년의 세월이 흘렀다. 정말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난다.

당시에는 말석에 앉아 기라성 같은 선배 원로 교수님들의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학문적 성장을 이루어왔는데 어느덧 내가 최고참 교수가 되었으니 감회가 새롭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상사법학회는 1957년에 창립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법학 분야 연구학회로서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초대 최태영 교수님, 제2대 서돈각 교수님, 제3대 손주찬 교수님, 제4대 이범찬 교수님에 이어 박길준 교수님, 양승규 교수님, 정동윤 교수님이 차례로 학회장을 역임하셨으며 나는 제20대 회장을 맡았고 그 뒤 홍복기, 최준선, 김건식, 이형규 교수 등에 이어 제32대 회장으로 김효신 교수가 선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학회는 상사법 분야의 여러 학회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모범이 되는 모학회로서의 위상을 떨치고 있으며 국내외 상사에 관한 법제연구는 물론 상사법 관련 국제학술교류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상법 개정과 여러 상사관계 법령들의 제정과 개정에도 우리 학회 교수님들이 크나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기업의 생활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의 근본정신은 경제적 합리주의로서 기술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윤리적 색채는 상대적으로 열어질 수밖에 없고 기업은 새로운 생산기법과 과학적인 관리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새로운 수요를 계속 생성시키고 이에 따라 상법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유동적·진보적 경향과 통일적·세계적 경향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 요소에 크게 좌우되고 고정적인 경향이 강한 민법의 특성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퇴임 강연에서 상법을 연구하는 교수들은

“전공의 특성에 맞게 생활태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견지하며 시대를 보는 혜안 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법적 사고와 틀을 뛰어넘어 상법 교수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 입장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타인의 입장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발휘하며 역지사지의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각 대학의 총장과 학장을 포함한 주요 보직자들은 상법학 교수가 맡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 발전에도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새로 학회장을 맡게 된 김효신 교수님은 젊은 날에 교수 생활을 시작하여 학회 활동을 열심히 해왔으며 경북대 법대 학장과 한국상사판례학회장,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로스쿨 선정 심사평가위원장 등을 역임한 분으로서 우리 상사법학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번 학회에서 김효신 회장의 관록과 역량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고 평가한다. 회장 취임 후 처음 발송한 뉴스레터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고 임원 선임과 학술대회의 개최에 있어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였음이 역력하였다. 이번 대구학회는 코로나19가 발생한지 거의 3년 만에 치러진 행사로 그 어느 여름 학회보다 많은 14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나는 평소 우리 학회 회원들에게 학술대회에서 자신이 맡은 주제 발표나 토론만 하고 바로 회의장을 떠나는 것은 결코 회원으로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학회라는 것은 같은 분야의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동체로서 새로운 학문의 조류도 접하고 서로 토론을 통하여 시야를 넓히는 일도 중요하지만, 학회가 끝난 후 같이 식사도 하고 담소도 하면서 회원상호간의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학술대회 참가자는 회식까지 끝까지 참석해야만 제대로 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농담 섞인 말을 자주 하였다.

이번 학회에서 김효신 회장은 임원진과의 협업을 통하여 가장 시사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였고, 보다 많은 주제를 다루기 위해 통합 세션과 분리 세션으로 나눠 진행하는 아이디어를 발휘하였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만찬과 함께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흥겨운 공연과 조

개구이를 곁들인 호텔 정원 파티가 곁들여져 더욱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호텔 사장까지 직접 테이블을 방문해 정중한 인사를 전한 가운데 더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나도 모처럼 후배 교수들과 상법학계의 최근의 동향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토론하고 정국 현안에 대해서까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이번 학회에는 회장을 역임한 다수 원로 회원들이 참석해 상사법 분야의 초기의 입법과정과 전개 과정에 대해 경륜이 묻어나는 경험담을 언급했고 참신한 젊은 실무 교수들도 대거 참석해 우리 학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보다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만들었다.

이번 학회는 법무부와 경북대 법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했고 쿠팡, 두나무, 한국해운협회가 후원했으며 한국 소비자원, 메가젠임플란트, 금북문화재단 등 여러 기관의 협찬을 받았다. 덕분에 회원들에게 푸짐한 선물 보따리까지 제공되어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고 평가한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학회 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회장을 역임한 선배 교수님들은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던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학회 회장의 임기가 끝났을 때 인사말을 통하여 “본인은 상법학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되도록이면 은퇴 후에도 계속 학회에 참석하여 후학들과의 교류를 이어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 정년 퇴임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학회에 참석해 신진 학자들의 연구발표를 접하면서 계속 자극을 받고 새로운 학문 동향을 익히는 것은 나름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학회 활동을 통해 나의 연구성과도 점검하고 젊은 후배들과 어울려 더 젊게 생활하려고 하는 나의 생각이 후배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비쳐지기를 바란다. 이번 학회는 김효신 학회장의 여성적인 섬세함과 리더십이 빛을 발했으며 우리 학회가 한 걸음 도약했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았다. 끝으로 이번 학회를 위해 맡은 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손창완 교수(총무이사), 노혁준 교수(연구이사), 김은수 연구교수(총무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의 노고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우리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 마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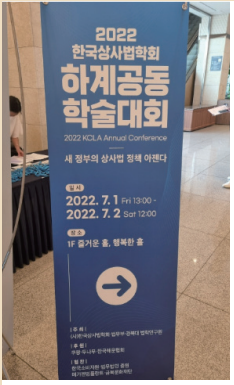
2022년 7월 1일 개회식



학술대회 분리세션



접수 및 즐거운홀, 하계학술대회 Youtube 스트리밍, 음악회



폐회식, 행복한 홀 안내



Korea Commercial Law Association

한국상사법학회 연회비 안내

우리은행 1006-401-234787 (사)한국상사법학회

2022년도 연회비 안내

구분	회비	증신회비 납부시
부회장	20만원	10만원
감사	20만원	10만원
이사	10만원	5만원
정회원	5만원	면제
도서관 및 기관 회원	20만원	-
법인회원	300만원	-

문의 : korcla@hanmail.net